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백석) - 수능특강 78p 관련>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물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소리 뻠뻠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
 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 * 억병: 매우 많이
- * 반관: 중국의 작은 식당
- * 원소: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 *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의미의 평안도 사투리
- * 오독독이: 오독독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 * 호궁: 중국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함.

(나)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나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키비 꿰어다 놓고
㉣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살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다)

잠시나마 인정이 그림다. 하도 숨 가쁜 세상이니 흰 구름 문
계몽계 일어나는 깊은 산,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 강낭
콩같이 푸르고 맑은 호숫가에 일간죽(一竿竹)을 드리우고 고기
와 벗을 삼아 질어가는 저녁노을에 물들어 보는 것도 태고의
꿈인 양 싶다. 구태여 생생한 현실을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
구하라마는 진실로 너무나 몰들 곳이 없이 숨 가쁘기 때문이다.
 제집 대문간을 나설 때도 무슨 불안이 문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만 같고, 제집 문간에 다 와서도 안에서 무슨 괴상스러
운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 이 초조한 심경은 대체 어디서 오
는 것일까? 제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인락한 자유성(自由城)은
아니다. 소란과 추억과 야비의 속취(俗臭)*는 구석구석 스며들
고 무미와 건조와 침울과 공포는 염통에 쉬파리 떼처럼 들어붙
는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10대 소년의 생태를 그린 영화의
제목이라거나 '이유 없는 초조'는 노경(老境)에 가까워가도
면할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라고나 할까. 백팔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히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
상에 누구냐? 그러나 나에게는 한 복지(福地)가 남아 있다.
변소에 문을 닫고 용변하는 시간만은 완전히 이 세상과 절연
된 특권을 향유한다. 겨우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좁은 우주, 그러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우주요, 나에게만 주
권이 부여된 왕국이다. 이 우주 안에 들어 있는 동안만은 완전
히 치외법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할애받고 있다. 그 시간만은
아무도 내 절대권을 침해하려 들지 않는다.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시간 선상에서도 나에게만 완전히 포기해 준 은총의 시간
이다. 큰기침을 하건 가래침을 뱉건 바지춤을 끄르고 허반부의
둔육(臀肉)을 노출하건, 수륙 병진(水陸竝進)으로 배출을 하
건, 악취를 마음대로 분산시키건, 아무 시비도 체면도 없다.

법률이야 물론이지만 도덕도, 예의도, 인습도, 전통도, 아무것도— 모든 사회적인 간섭, 인간적인 관련에서 오는 시비 혜에*도 없다.

나는 굳이 내 결백을 수식할 필요도, 내 단정한 품격을 조작할 필요도, 시간에 분망할 필요도 없다. 우선 조여 매었던 혁대를 끄르고 켜켜로 입었던 바지며 내의, 속내의에서부터 허반부의 둔육을 해방시키고 두 발을 고여, 전신을 편안히 내려앉히면 위로 충만했던 모든 들뜬 기운이 가라앉으며 평온한 회황시대(羲皇時代)로 돌아온다. 향기롭지 못한 냄새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만다. 마치 이 세상에 오래 살아 이 세상에 냄새를 모르고 배기듯이, 아무도 이 문을 열 사람은 없다. 아무 일도 내 스스로가 나가기 전에는 부를 리도 없다. 찾을 리도 없다.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은 나의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권위 있게 정지당하고 만다. 지구조차 이 속에서는 돌지 않는다. 세계에서 수소탄이 터지든 태양이 불구나무를 서든 나는 결코 개의하지 아니해도 좋다.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무관심과 태만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책하는 사람이 없다. 잠시 가쁜 숨을 그치고 유유자적한 세계에서 기상천외의 꿈속을 헤매며 오유*하는 것도 나의 자유일 것이다. 이 지상에서 자유 해탈의 시간은 이 시간뿐이고 소부 허유*가 놀던 기산(箕山) 영수(潁水)는 남아 있는 곳이 이곳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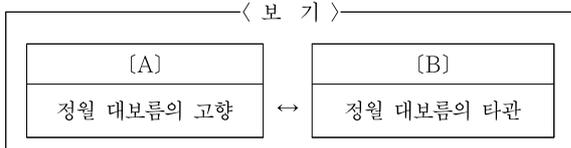
- 윤오영, 「축상락(廁上樂)」 -

*숙취 : 비속한 냄새. 돈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는 기풍.
 *혜에 : 비방과 칭찬.
 *오유 : 재미있고 즐겁게 놀.
 *소부 허유 : 요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귀가 더럽혀졌다고 영수에서 귀를 씻은 후 기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고, 소부는 그 물이 더럽혀졌다 하여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 함.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보기>는 (가)의 시·공간적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새 옷'과 '새 신'은 '내가'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듣는 '호궁 소리'와 '오독독이' 터지는 소리는 타관에서 명절을 보내는 '나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③ [B]에서의 '때 묻은 입던 옷',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내가' '남의 나라'에서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A]에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과 [B]에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나의' '쓸쓸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상황과 [B]에서 '떡국'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들로, ㉠을 통해 화자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 ② ㉡은 고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대상으로, ㉡에게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으로, ㉢에게 화자는 고향의 따뜻함을 간접 경험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와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로, 정서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으로, ㉤을 통해 화자는 고향의 정취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

4. (다)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깊은 산속에 있는 고요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② 온갖 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비웃는 석가모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③ 숨 가쁜 현실을 등지고 자연으로 도피하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의 집을 소부 허유가 놀던 기산으로 인식하며 평안과 자유가 허락된 유일한 공간으로 보고 있다.
- 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이나 초조 등의 심리적 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정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곳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에'라고 한다. 그런데 장소 경험은 내적 경험이 동반되기에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소 경험의 주체인 인간과 경험 대상인 장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은 '장소의 정체성'으로 개념화된다.

- ① (가)의 '고향의 내 집'은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기 웃음으로 지내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는 경험 주체와 경험 대상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다)의 '변소는 글썽이가 '자유 해탈의 시간'을 맞볼 수 있다고 여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는 장소 경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의 '가업집'과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 곳으로, 이를 통해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인 장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의 '호궁 소리' 들리는 '거리'와 (나)의 '행인'이 지나는 '나룻가'는 화자가 타인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가 정서적인 끈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의 '고향의 내 집', (나)의 '고향', (다)의 '변소'는 모두 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곳으로, 이를 통해 장소는 경험 주체가 가진 장소애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군.

두보나 이백같이(백석), 축상락(윤오영)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가)의 1행에는 '정월 대보름' (겨울), (나)의 1연에는 '흙이 풀리는 내음새'(겨울 → 봄)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7행에는 '호궁 소리', (나)의 4연과 6연에는 '잔바비 우는'과 '누룩을 디디는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는 '대보름 명절'과 '두보나 이백 같은', (나)에는 '내음새'라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가)의 19행에서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와 (나)의 3연에서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등의 문형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는 대상에 대한 공간의 태도, (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④ (나)의 6연에는 '누룩이 뜨는 내음새……'라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으나, (가)에는 마무리 부분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A]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상황과 [B]에서 '떡국'을 먹는 상황이 대비된다고 볼기는 어렵다. 마른 물고기를 먹는 현재와의 대비가 더 적절하며, 떡국은 오히려 타관에서 위안이 되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기 웃음으로 지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나'가 고향의 가족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풍요로운 대보름 명절을 보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뿔뿔 높아져'는 정월 대보름 명절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므로, 타관에서 홀로 외로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나'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과거 고향의 대보름 명절에 '나가 누린 새 옷'과 '새 신', '떡과 고기'에 비해 현재 '나가 입고 먹고 있는 때 묻은 입던 옷'과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내가' '남의 나라'에서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④ 과거 '나가 고향에서 보냈던 정월 대보름은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고, 현재 고향을 떠나 타관에서 홀로 생활하다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을 대비하여 '나의 쓸쓸한 마음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한다.

㉮ ㉮은 타국에서 '가업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향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환기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타관에서 쓸쓸히 대보름 명절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의 처지와 유사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이들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고향에서 가까운 나루터에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고향의 따뜻함을 간접 경험하게 해 주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함께 회한에 젖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⑤ ㉮은 현실의 문제를 위해 특정 장소에 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화자는 고향 소식이 나 고향의 정취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

4. [출제 의도] 작품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이해한다.

㉮ 글쓴이는 이 세상을 '너무나 몸 둘 곳이 없이 숨 가쁜' 곳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실로 인해 현대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초조와 불안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는 이러한 생활이 숨 가쁘게 바쁜 현대인의 삶과는 동떨어졌다는 의미이지, 글쓴이가 이러한 승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② (다)에서 '백팔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히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상에 누구냐?'는 석가모니처럼 현실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의미이지, 글쓴이가 이러한 석가모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다)의 '구태어 생생한 현실을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구하라'라는 '에서 볼 수 있듯이 글쓴이는 현실을 등지고 자연으로 도피하여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소부 허유의 삶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집을 소부 허유가 놓던 기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글쓴이는 '제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안락한 자유성은 아니다.'라고 했다.

5.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거리'는 고향이 아닌 타관에 있는 공간으로, 대보름 명절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 장소이다. 따라서 (가)의 '거리'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와 대조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므로 (가)의 '거리'를 화자가 타인과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나)의 '나룻가'는 타인인 '행인과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내 집'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대보름 명절을 즐겁게 보냈으므로 '고향의 내 집'은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장소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변소'를 세상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탈을 맛보는 장소라고 했다. 따라서 '변소'라는 장소는 장소의 의미가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가업집'에서 과거 명절날 고향에서 먹었던 '떡국'을 놓고 일시적 위안을 얻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고향 가까운 '주막'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의 '가업집'과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으로 고향의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며 위안을 얻는 장소로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특정한 장소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 글쓴이는 '변소'라는 특정한 장소를 초조와 불안의 심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의 '고향의 내 집', (나)의 '고향', (다)의 '변소'는 모두 경험 주체가 가진 장소에 의한 장소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 수능특강 79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 밑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뭉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어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나)

드문드문 **세상을 꿰어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 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시어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직유법을 이용하여, (나)는 설의법을 이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시적 공간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백'에 대해 '나'가 얻은 깨달음은 자연물에 빗댄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②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깨달음은 하루의 시작을 암시하는 표현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나'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어머니'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머니'의 부재 상황에서 낯선 '존재'가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80년대 한국 문단에서 고정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민중의 역사 의식과 여성해방의식을 동시에 탐구하고자 했던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김혜순은 실험적 언어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험에 대해 끈질기게 말해온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두 시인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나 일상의 소재를 포착하여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나'가 소외받는 이들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길 바라는 것은 이들에게 태도의 전환이 필요함을 전달하려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나'가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외받는 존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세상을 꿰어내어'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소외받는 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어머니'에 대해, (나)에서 '아낙네'에 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평범한 여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노을', '시냇물' 등을, (나)에서 '밭바닥', '눈물' 등을 사용한 것은 일상의 소재를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01~03]

01.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석양 무렵', '노을' 등의 시어를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세상을 끌어내어 / 한 며칠 눌렀다가'와 같이 시간 관련 표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쟁쟁쟁', (나)의 '드문드문', '서성서성' 등의 음성상징어는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생성한다. ③ (가)에서 '잔소리'가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라고 묘사되는 부분은 청각의 시각화로 느껴 볼 수 있으며,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표현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나)는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④ (가)의 '노을 같은', '시냇물 같은' 등의 구절에서는 직유법이, (나)의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와 같은 구절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확인된다. ⑤ (가)는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나)는 시민들의 험겨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

02.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①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을 상징하는 '동근 여백'을 본 후, '여백이란 탄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에 '네 사립에 걸린 노을'이나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고요한 여백'이 되어 타인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석양', '노을' 등의 시어를 고려해봤을 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하루의 시작'보다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가까운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④ 화자의 어머니는 오히려 부재함으로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자리를 대체할 '낯선 존재'가 특별히 등장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부재가 생성하는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자신 또한 다른 존재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여백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고요한 여백'은 남겨진 타자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나'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는 것은 사람에게 추억과 새로운 의미로 남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소외받는 이들이 고요한 여백으로 남길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지 않다.

<꽃(이육사) - 수능특강 82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나)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다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불이들
 눈 녹이듯 호물호물
 녹여 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꽃'이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은 '내가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상황 속에서 꽃에 취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삼천리 마을'과 대응하는 것으로 봄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남해와 '북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적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은 중요와 불신으로 가득 찬 대립과 긴장을 상징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계절의 특성과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그려내는 경우가 있다. (가)와 (나)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가)는 일제 치하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나)는 민족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 ① (가)의 '제비 떼'는 조국의 광복을, (나)의 '너그러운 봄'은 조국의 통일을 상징하는 소재에 해당하진않.
- ② (가)의 '북쪽 툰드라 찬 새벽'은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나)의 '매운 눈보라'는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가)의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나)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는 모두 밝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나)의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는 모두 밝은 미래가 도래하려면 반성적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군.
- ⑤ (가)의 '꽃'과 '북쪽 툰드라', (나)의 '너그러운 봄'과 '눈보라'는 모두 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군.

꽃(이육사)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꽃으로, (나)에서는 봄으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각 연의 1~3행은 상황을, 4행은 화자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에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의 4연에는 '호물호물'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 말 건네는 방식도 없고, (가)에서는 말 건네는 방식(회상의 무리들아)은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드러낼 뿐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연에는 '오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가)에 사용된 설의법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적 공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② ㉠꽃 성'은 광복을 찾은 조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꽃 성'은 나비처럼 꽃에 취한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에 취해 봄을 만끽하면서 지나간 겨울을 회상하는 공간이다.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꽃 성'은 '내가'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꽃에 취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연에서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허려 꽃은 빨강게 피어난다고 했다. 따라서 ㉠ '동방'은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2연에서 봄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고 했고, 3연에서는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고 했다. 또 제주와 두만강, 삼천리는 모두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 '제주와 두만'은 '삼천리 마을'과 대응을 이루는 공간으로 봄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나)의 3연에서 ㉣'바다와 대륙 밖'에서 겨울의 매운 눈보라가 왔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1연과 2연에서 봄은 '남해와 북녘'에서 오지 않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고 했다. 따라서 '바다와 대륙', '남해와 북녘'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제주와 두만'과 달리 외부의 세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4연에서 쇠붙이를 '미움의 쇠붙이'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쇠붙이'는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3~4연에서 겨울이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결국 삼천리 마을에 봄이 울터서, 강산을 덮은 미움의 쇠붙이를 녹여 버린다고 했다. 따라서 ㉤ '강산'은 쇠붙이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희망이 움틀 거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④ (나)의 3연에 '너그러운 봄은 ~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봄'이라는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열원과 확신이 드러나 있다. (가)의 1연에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는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열원과 확신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이를 위해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봄'은 주로 긍정적 의미인 밝은 미래, 희망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의 봄이 오면 날아오는 '제비 떼'와 (나)의 '너그러운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각각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겨울'은 주로 부정적 의미인 시련, 고난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의 '복쪽 툇트라 찬 새벽'과 (나)의 겨울이 몰고 온 '매운 눈보라'는 각각 가혹한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눈 속 깊이 꽃망아리가 움작거리려'와 (나)의 '봄의 그 눈짓은'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는 겨울이 가고 곧 봄이 도래할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봄(밝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통일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